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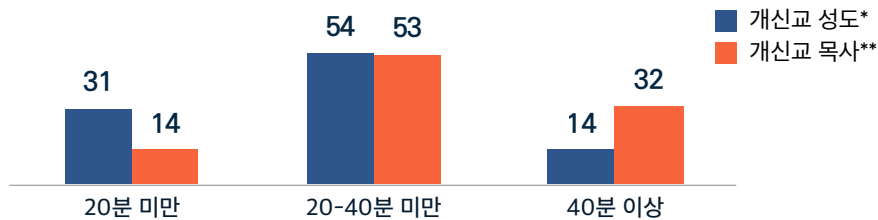
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

2

미국, 설교 시간에 대해 목사와 성도 간 인식 차이 크다!  
‘40분 이상 설교한다’에 목사는 14%, 성도는 32%

-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(Lifeway Research)에서 목사의 설교 길이에 대해 성도와 목사의 인식을 조사 했는데, 그 결과, 목사는 자신의 설교에 대해 ‘40분 이상 설교한다’에 14%로 응답한 반면, 성도는 ‘출석 교회 목사가 40분 이상 설교한다’에 32%로 응답하여 성도가 목사보다 설교 시간에 대해 더 길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
- 이 조사를 실시한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두 그룹 간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이유로, 성도의 경우 설교 외에 목사의 성경 봉독, 구원 초청(Altar call) 등의 시간을 모두 설교 시간으로 인식하여 목사보다 설교 시간을 훨씬 길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

[그림] 설교 시간 인식(개신교 성도 vs 개신교 목사)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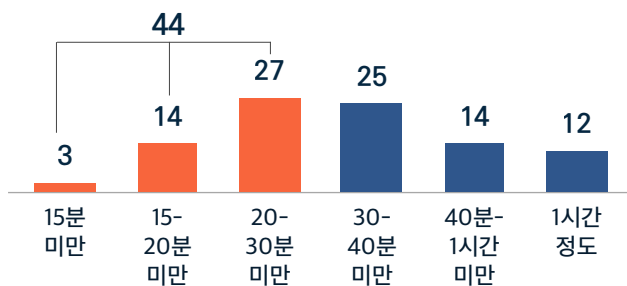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 : Lifeway Reserch, 'Pastors' Views on Sermon Length', 2020.05.13.(미국 전체, 개신교 목사 1,000명, 전화 조사, 2019.08.30.-09.24)  
 \*\*자료 출처 : Lifeway Reserch, 'Protestant Churchgoer Views on Sermon Lengths', 2020.05.13.(미국 전체, 개신교 성도 1,002명, 온라인 조사, 2019.09.20.-27)  
 \*\*\* 구원 초청(altar call)은 미국 부흥 집회 등에서 주로 사용했는데, 현재 나사렛교단 등에서 예배 시간 내 포함하고 있다. 우리나라에서는 결단의 시간, 복음으로 부름 등으로 불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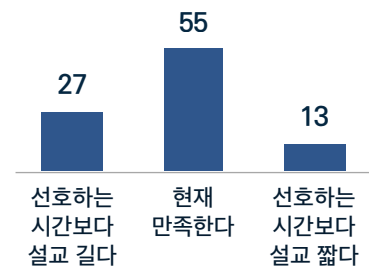
● 미국 개신교인의 선호하는 설교 시간, ‘20-30분 미만’이 가장 높아

- 미국 개신교 성도가 선호하는 설교 시간은 ‘15분 미만’ 3%, ‘15-20분 미만’ 14%, ‘20-30분 미만’ 27%, ‘30-40분 미만’ 25% 등으로, 44%의 개신교인이 30분 미만의 설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
- 또한 현재 설교시간에 대해 개신교인 중 55%가 만족하고 있지만, 27%는 현재 설교가 길다고 응답했고, 13%는 설교가 짧다고 응답해, 대체로 만족하지만 좀 더 짧았으면 하는 의견이 약간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

[그림] 미국 개신교 성도 선호하는 설교 시간 (%)



[그림] 미국 개신교 성도 현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(%)



\*자료 출처 : Lifeway Reserch, 'Protestant Churchgoer Views on Sermon Lengths', 2020.05.13.(미국 전체, 개신교 성도 1,002명, 온라인 조사, 2019.09.20.-27)